전북일보 1999년 5월24일(월요일)

군산지역 각종시위로 '몸살'

5월 현재 49건 발생… 민생치안 걸림돌 우려

군산경찰서 집계

군산지역이 각종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노동관계와 미군기지 문제등 대규모 집단시위가 급증, 지역사회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5월 현재 집단시위는 노동문제 22건에 2천5백40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 미군기지집회 17건 1천3백명, 개발민원 3건 8백30명등 모두 49건에 6천2백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전체 시위횟수 72건 5천8백29명보다 규모면에서 4백여명이나 많은 수치.

게다가 올해 노동시위도 지난해 전체 노동관련 시위 19건에 1천8백45명보다 규모와 횟수면에서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위의 내용면에서도 경찰과 시위자간 잇단 몸싸움 등 상호대립 양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데다 해당 공직자와 이해당사자간 대립도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기아특수강 정리해고 근로자들은 지난 3월22일 이후 군산지방노동사무소앞에서 50여일째 항의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군산시민모임도 1년째 미군기지와 관련한 장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각종 해고근로자들의 항의시위는 최근들어 거의 일상화되고 있어 경찰력이 질서유지에 집중되고 있어 민생치안의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시위자들은 힘의 논리를 내세워 행정기관 방문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시위자들이 사전신고 등 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차츰 집회문화의 정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실직과 함께 해고 근로자들이 반발하면서 조직적인 항의로 번지고 있는데다 연이은 시민단체들의 정치성 짙은 집회가 계속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의 한관계자는 『최근 잇단 시위로 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십분이해하지만 계속된 집단시위로 경찰력이 발목을 잡힐 경우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군산=정영욱기자